

2008년 중남미 무역의 특징 및 향후 전망

1. 최근 중남미 무역의 특징

가. 수출증가세 둔화, 수입증가세 지속

-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증가세 둔화, 소득수준 향상 및 산업생산 호조에 따른 수입증가세 지속
 - 중남미경제위원회(ECLAC)에 따르면, 2008년 중남미 수출증가율은 2007년 수출증가율(6.2%)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2.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2008년 중남미 수입증가율은 2007년에 이어 두자리수 증가율(11.8%)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이는 중남미 수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한 수입수요 감소, 2008년 3/4분기 이후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하락세 반전 등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율이 감소한데 반해,
 - 내수 경제 성장 지속, 산업생산 호조 등으로 중남미 경제가 2008년 불리한 대외여건 속에서도 4.6%(IMF 예상치)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소비재와 자본재 수입이 증가한 데 기인함.
- 브라질, 멕시코, 칠레 등 수출증가세 둔화
 - 2008년 수출증가율이 전년보다 증가한 국가는 볼리비아(천연가스), 콜롬비아(석탄), 페루(아연), 우루과이(농산물) 등 4개국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의 2008년 수출증가율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중남미의 무역거래의 약 40%를 차지하는 멕시코를 비롯하여 브라질, 칠레, 파나마 등 많은 중남미 국가들의 2008년 수출증가율이 전년대비 절반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 특히, 멕시코의 경우 2007년 수출증가율 6.2%였던 반해 2008년 수출증가율은 1%로 크게 둔화될 전망

○ 페루,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 수입증가세 지속

- 전년 대비 수입이 감소한 베네수엘라(-3.2%), 아이티(-6.0%)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의 수입수요 증가세는 지속된 것으로 나타남.

-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등 많은 중남미 국가들의 수입 증가세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소폭이 수출증가율 하락폭에 비해 크지 않은 편임.

- 특히, 페루, 콜롬비아, 우루과이, 에콰도르 등의 국가의 경우에는 2008년 수입증가율이 전년대비 오히려 상승하였음. 이중 페루는 23.9%의 높은 수입증가율을 기록함.

<표 1> 2008년 중남미 국가별 수출입 증가율

단위: %

국 가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국 가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2007	2008 ^e	2007	2008 ^e		2007	2008 ^e	2007	2008 ^e
아르헨티나	8.9	5.1	20.7	19.3	멕시코	6.2	1.0	7.0	6.5
볼리비아	3.1	7.4	4.4	12.0	파나마	14.0	5.5	12.5	6.5
브라질	6.6	2.8	20.7	19.6	파라과이	9.6	9.6	10.8	10.8
칠레	7.8	3.7	14.3	16.0	페루	6.2	9.8	21.3	23.9
콜롬비아	7.5	11.6	16.4	18.0	우루과이	9.7	11.0	10.3	18.0
코스타리카	9.1	0.0	4.6	4.5	베네수엘라	-5.6	-3.2	33.6	8.2
에콰도르	2.6	6.0	7.0	12.0	아이티	-2.3	-6.0	-0.3	2.0
온두라스	3.6	3.0	8.0	4.0	중남미 전체	6.2	2.8	13.2	11.8

자료: ECLAC

나.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 증대

○ 아시아 국가의 무역 비중 확대

- 2007년 중남미 국가들의 미국과의 교역규모가 전년 대비 6.2% 증가한 데 반해, 중국, 인도,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주요 6개국과의 교역규모는 29% 증가한 2,297억 달러를 기록함. 이는 중남미의 유럽 27개국과의 교역규모와 맞먹는 수준임.
-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대미 교역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비중은 확대되고 있음.
- * 중남미 국가들의 對미국 수출 비중 : '00년 60% → '07년 42%
중남미 국가들의 對아시아 수출비중 : '00년 7% → '07년 18%

<표 2> 브라질의 미국 및 아시아와의 교역 비중

	對 미국		對 아시아	
	교역액 (백만달러)	비중(%)	교역액 (백만달러)	비중(%)
2006	39,590	17	43,704	19
2007	44,203	16	55,807	20
2007. 1~10월	36,745	16	46,032	20
2008. 1~10월	45,514	14	72,719	23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 및 무역대상국 다변화 노력의 결과

- 중남미 국가들의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① 양 지역간 상호보완적인 무역구조, ② 중남미 국가들의 무역상대국 다변화 노력에 따른 아시아 시장 개척, ③ 아시아 국가들의 중남미 원자재 및 에너지에 대한 수요 지속 및 국제 자원가격의 상승 지속, ④ 중국의 자동차 등 중남미 소비자들의 아시아 제품에 대한 선호 증가, ⑤ 양 지역간의 FTA 체결 확대 등 통상관계 개선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대 아시아 교역 확대는 미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로부터 중남미 수출 확대를 지탱해준 요인으로 작용함.
- * 아시아 국가들은 석유, 천연가스, 금속 및 비금속 광물, 농림수산물

등 중남미의 부존자원을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중남미 국가들은 아시아의 자동차, 통신, 전자, 중화학품 등에 대한 수입수요가 높음.

○ 중국 및 일본과의 교역 확대 뚜렷

- 중국은 중남미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교역규모 및 증가율 모두에서 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지난해 중국-중남미 교역규모는 전년대비 46.2% 증가한 1,026달러를 기록, 주요 아시아 6개국의 중남미 국가들과의 교역액 중 44.7%를 차지함.

- 다음으로 일본이 전년대비 16.1% 증가한 592억 달러를 기록하며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한국도 전년대비 22.6% 증가한 369억 달러를 기록하여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3> 2007년 중남미-아시아 6개국간 수출입

	수출액 (억달러)	수출증가율 (%)	수입액 (억달러)	수입증가율 (%)	무역액 (억달러)	무역증가율 (%)
중국	515	43.1	511	49.4	1,026	46.2
일본	351	14.7	241	18.1	592	16.1
한국	256	25.5	113	16.5	369	22.6
인도	50	25.0	62	24.0	112	24.4
태국	55	18.9	50	16.3	105	17.7
싱가폴	69	19.0	24	-0.1	93	13.4
합계	1,296	27.8	1,001	30.5	2,297	29.0

자료: Latin-Chronicle

<표 4> 브라질-아시아 수출입 현황 (2007~08)

단위 : 백만달러

	2007		2008 (1-7월)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아시아	25,086	30,718	20,799	26,011
중국	10,749	12,621	9,948	10,902
일본	4,321	4,609	3,159	3,776
한국	2,047	3,391	1,571	3,167

자료 : 브라질 중앙은행

다. 중남미 국가 간 교역 및 투자 증대

○ 중남미 국가간 교역 빠르게 성장

- 중남미통합협회(ALADI: 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에 따르면, 2008년 1/4분기 중남미 국가간(intraregional) 이루어진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1.5%,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무역상대국 다변화 노력 및 중남미 시장의 구매력 향상에 기인

- 중남미 국가간 교역 확대는 미국에 의존적인 무역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중남미 국가들의 무역대상국 다변화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 결과 중남미 국가간 FTA 체결 또는 경제통합기구 설립 등이 2008년 중 가시화되었음.
- 또한 최근 국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호황으로 중남미 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중남미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향상된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됨.

3. 2009년 중남미 무역 전망

○ 2009년에도 중남미 수출증가율 마이너스 반전 전망

-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경기침체의 지속* 및 주요 수출품목의 원자재 가격 하락세 지속과 더불어, 그동안 미국의 수입 감소를 상쇄시켰던 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의 수입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9년 중남미 국가들의 수출증가율은 마이너스로 반전할 전망이다.

* 브라질, 멕시코, 칠레 등 중남미 주요국들을 비롯하여, 2008년 전년 대비 수출증가율이 오히려 증가한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우루과이 등 4개국도 높은 자원 수출 비중으로 인해 국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하락에 큰 타격을 입게 됨에 따라, 2009년에는 총 수출액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임.

<표 5> 2008-09년 중남미 주요국들의 수출액 전망

단위: 억달러

	브라질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우루과이	볼리비아
2008 ^e	1,975	2,926	695	315	378	73	64
2009 ^e	1,843	2,644	563	272	336	56	52

자료: EIU

* EIU 중남미 무역수지 전망치 : 2008년^e 697억달러→ 2009년^e 295억달러

○ 2009년 중남미 수입증가율 마이너스 기록 전망

- 지난 수년간 4~5%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해온 중남미 경제는 2009년 1%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민간 소비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여, 과거 소득수준 향상에 힘입어 증가했던 수입 역시 마이너스로 반전할 것으로 보임.

* 2009년 중남미 경제성장률 전망치 : ECLAC (1.9%), EIU (1.7%)

<표 6> 2008-09년 중남미 주요국들의 수입액 전망

단위: 억달러

	브라질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우루과이	볼리비아
2008 ^e	1,743	3,069	596	315	372	73	49
2009 ^e	1,665	2,768	537	272	343	56	44

자료: EIU

○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비중 확대 지속 전망

- 아시아 국가들의 중남미 원자재에 대한 수입 의존, 수출대상국 다변화 노력에 따른 중남미 지역에서의 수출 확대, 중남미의 값싼 노동력 및 풍부한 자원에 기반한 자원, 인프라, 물류 등에 대한 투자 등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아시아 국가들의 수입 및 투자 수요는 특히, 개방적인 시장정책과 풍부한 자원, 아시아 국가들과의 성공적인 합작투자 사례 등을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철광석, 에탄올, 항공), 칠레(원예, 수산물, 임산자원), 멕시코(자동차 시장)를 중심으로 계속될 것으로 기대됨.
- * 특히, 칠레의 아연수출 대상국 1위가 중국이며, 연어수출 대상국 1위는 일본일 뿐 아니라 중남미의 對인도 수출에서도 칠레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체결에도 적극적임.
- 또한 중남미 국가들도 미국의 경기침체로 무역대상국으로서의 아시아 시장에 대한 관심 및 아시아 자동차, 전자제품, 통신제품 등에 대한 선호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됨.
-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아르헨티나의 에너지 회사, 멕시코의 식료품 회사 등 중남미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처로 중국, 인도 등의 아시아 국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중남미의 對아시아 직접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2009년에도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 및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양지역간 수출증가율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 무역다변화 노력, 양지역간의 관심 확대 및 FTA 체결 확대 등으로 중남미의 對아시아 교역 비중은 확대될 전망이다.

전문연구원 이은경(☎ 02-3779-6676)
 E-mail : twoek1982@koreaexim.go.kr